

■주간 증시 전망

북미 정상회담 등 대형이벤트 많아  
주식시장 긍정적 기대 우세  
전기차·2차 전지 등 실적호전주 주목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공식화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축소되고 미국발 무역분쟁 우려가 다소 완화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코스닥시장은 주도주가 부각되지 못한채 전기차 관련주의 상승에도 제약바이오주와 대북관련주에 대한 차익매물이 증가하며 약세를 보였다. 미국 S&P500은 고용경제지표 호조와 유럽중앙은행이 양적완화 종료 논의를 착수한 것이 은행주에 강제로 연결되며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주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는 12-13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와 13-14일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6월 FOMC회의에서 금리인상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므로 금리인상보다는 향후 금리인상 횟수를 알 수 있는 점도표와 기자회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올해 금리인상이 3회에서 4회로 증가하는지와 내년도 금리인상 횟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CB는 QE(양적완화)연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은 QE연장을 선반영하였기 때문에 시장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12일 싱가포르 카펠라호텔에서 개최된다. 시장은 회담개최를 확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비핵화의 목표지 한 명기 여부, 불가침협약 혹은 종전선언 등 긍정적인 요소가 추가적으로 있어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남아 있지만 회담개최 발표 이후 관련주의 높은 상승에 따라 단기 차익실현우기도 높은 상황이다.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싱가포르에 문재인대통령이 참여하는 3차회담과 종전협정 가능성 또는 가을경 위상된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데 회담결과가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상승을 이용해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단기적으로 바람직해 보이며 대북관련주는 시간을 두고 다시 접근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냉탕과 온탕을 섞 없이 오가며 지속적으로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던 미중 무역분쟁은 15일 미국 행정부의 중국 수입품 500억달러 품목에 대한 관세발효 여부가 확정되면서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결정의 결과와 관계없이 시장 영향력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는 대형이벤트가 많아 전망보다는 대응이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인 대응은 지난주 언급하였듯 현저수대인 2450P는 펀더멘탈을 고려해보면 바닥권에 근접해 있어 하락시 매도보다는 역세기리기를 통한 저점매수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국내반도체 기업은 저평가 상태이며 특히 삼성전자는 액면분할과 자사주매입 등 주주지향성을 위한 과정이 진행중이며 최근 불록딜을 감안하면 근시일내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발표 가능성이 있어 저점매수 대응이 필요하다. 또 전기차 및 2차전지, 글로벌경기회복에 따른 기계(굴삭기), 한한령 완화 및 중국인 관광객 회복기대감에 따른 중국소비재주에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 올해도 쌀 과잉공급 되풀이 되나

재배 의향 면적 4.7% 감소 불구 소비량 갈수록 줄어  
농촌경제연 발표...시장 공급 12만t 많아 쌀값 하락 우려

쌀 과잉생산 문제가 여전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쌀의 소비량을 갈수록 줄어드는 탓에 전년에 비해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생산시장에 풀리게 될 쌀의 물량은 오히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지난해 '역대급' 정부의 쌀 매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쌀값 하락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가 발표한 농업관측 6월호(쌀)를 살펴보면 올해 쌀 과잉공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

다. 특히, 논벼 표본농가에 대한 조사에서 올해 벼 재배의향 면적이 지난해 75만5000ha에 비해 4.7%(3만6000ha) 줄어든 71만9000ha로 파악됐지만, 신곡의 시장 공급량은 전년 301만5000t보다 4.1%(12만3000t) 많은 313만 8000t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생산면적이 줄어들어도 시장공급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농촌경제연구원은 "정부의 시장격리가 없을 것을 가정한다면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 순매입량이 줄어들

기 때문에 올해 재배한 쌀의 시장공급량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내 쌀의 수요가 공급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신곡 예상 수요량은 각각 1%~2.3% 감소한 301만 6000~309만 7000t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올해 재배한 쌀의 예상 공급량보다 약 4만~12만t 내외의 가량 적은 것이다. 올해 생산한 쌀 수만 t이 남을 것이라는 뜻이다.

기상이변과 같은 변수가 없는 한 올해도 과잉공급에 따른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농촌경제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올해 수확기 쌀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과 달리 오는 7-9월 단경기 쌀 값은 높은 가격을 유

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산물벼 인도에도 산지유통업체의 재고 부족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향후 정부의 공매 등 조치가 없을 경우 단경기 평균 쌀 가격은 80kg 18만원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정부가 최소한의 물량을 공매하면 단경기 가격은 현 수준보다 소폭 상승한 17만 4000~17만 7000원으로 17만원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 공매의 경우 방출하는 양이나 그 시점에 따라 수확기 산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해 방출물량과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완도군과 최영루,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소, (사)식문화세계교류협회는 지난 9일 완도전복만두 공동개발 및 전복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제공>

## 전복만두 개발 전복값 폭락 막는다

완도군·전남생물산업진흥원 바이오센터·최영루 협약

전복 값이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완도군, 전남 어촌특화지원센터 자매기관인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소, 기업, 단체 등이 전복 만두를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완도군, 최영루,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소, (사)식문화세계교류협회는 지난 9일 완도전복만두 공동개발 및 전복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영루는 70년 전통의 만두전문제조 식품회사로 1945년 서울 중구 소공동에서 물만두 전문 중화식당으로 시작해 만두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물만두를 포함해 10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은 ▲완도전복만두 등 수산가공품 공동개발 및 판매 ▲전복 등 수산물 유통 및 소비 네트워킹 구축 ▲전남 수산물을 활용한 음식 레시피 개발 및 홍보마케팅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최영루는 완도전복만두 연구개발비로 500만원을 해양바이오연구소에 전달하기도 했다.

완도전복만두는 명품전복만두, 고급전복만두, 일반대중성 만두 등 3가지 종류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이날 협약 이후 열린 시연회에서는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최영루 신정호 대표는 "최영루 대표 상품인 물만두에서 제2의 대표상품으로 '완도전복만두'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으며, 박현식 완도군수 권한대행은 "전복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최영루가 전복 만두를 개발해 너무 감사하다"고 답했다. 임영태 해양바이오연구소장은 "완도전복 명성에 맞는 명품 가공식품을 개발해 안정적인 전복 생산과 소비 판로 인프리가 구축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완도전복만두는 오는 8월 출시 예정으로 본격 생산 판매될 경우 연간 100t 분량의 전복 원물이 소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조 기자-전남주재출판본부장 ejhung@kwangju.co.kr



## 농협광주공판장 장성 토마토 농가 일손돕기

농협광주공판장(사장 김훈)은 지난 8일 영농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성군 진원면 토마토 출하 농가를 방문해 일손을 도왔다.

이날 광주공판장 전 직원은 토마토 하우스 정비 작업과 수로 정비 등 농가지원을 펼쳤으며, 농협은 추후 농업재해 및 영세·고령농업인 등 도

움이 절실한 취약농가를 우선대상으로 이달말까지 범농협 일손돕기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김훈 사장은 "일손부족으로 지쳐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도움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일손돕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aT, 미얀마 식품박람회 참가 배·단감·전통식품 홍보

유통업체 바이어 초청 현장 상담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미얀마 양곤에서 열린 '2018 미얀마식품박람회' (Food&Hotel Myanmar)에 참가해 한국관을 운영, 현지에서 한국 농식품을 홍보했다.

미얀마의 수입식품시장은 개방정책 전인 2010년 대비 무려 3.7배나 증가했으며, 매년 7~8%의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또 6000만 인구 중 60%가 30세 이하로 구성된 젊은 국가로 한류의 영향도 커 한국 농식품 업체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꼽힌다.

aT는 올해 3번째 참가하는 이번 박람회에 농식품 수출업체 18개사와 한국관을 구성, 배와 단감과 같은 주요 수출전략품목인 신선 과일을 비롯한 훈제치킨, 떡볶이 등의 즉석식품과 김치, 인삼 등 한국의 전통식품 등을 선보였다. 또 박람회와 더불어 주요 유통업체 바이어를 초청해 현장 수출 상담도 진행했다.

백진석 aT 식품수출이사장은 "현지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현지 대형유통업체와의 협력 등 마케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미얀마를 아세안의 주목받는 신규 유망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경매 투자

- ▶경매특수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특수물건만 취급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자본금 1억이상
- ▶월15% 이상 수익
- ▶소유권/근저당으로 보장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